

신물질 · 제법 특허출원 급증

정밀화학분야 특허 93년말 6863건 ... 아직 외국인출원 주종

신물질과 제법방법에 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특허청이 최근 7년간(83~93) 국내 물질특허 출원동향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 87년7월 물질특허제도 도입후 가장 영향이 큰 의약·농약 등의 정밀화학분야(미생물·고분자 제외)에 대한 물질특허건수가 93년말 현재 모두 6863건으로 매년 급증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물질특허출원 가운데 외국인이 6324건으로 92.1%를 차지하고 있고 내국인은 539건으로 아직 7.9%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러나 지난 87년 고작 27건이던 내국인의 물질특허 출원은 그간 국내 연구진들의 활발한 연구개발에 힘입어 89년에 49건, 91년 110건, 그리고 지난해 140건으로 4.2배나 늘었다.

물질특허 출원현황			(단위 : 건, %)		
구 분		1987	1991	1993	합 계
내국인		27 (3.4)	110 (12.3)	140 (15.5)	539 (7.9)
외국인	미 국	228	196	170	1,604
	일 본	182	187	193	1,481
	유 럽	310	352	367	2,933
	기 타	40	48	35	306
	소 계	760 (96.6)	783 (87.7)	765 (84.5)	6,324 (92.1)
합 계		787 (100)	893 (100)	905 (100)	6,863 (100)

이데따라 전체 물질특허출원에서 내국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3.4%에서 15.5%로 12.1%(3.5배)나 증가했다.

내국인 가운데 최다출원기관은 화학연구소로 136건의 물질특허를 냈으며 럭키(95건), 과학기술원(51건), 제일제당(46건), 선경인더스트리(21건), 유한양행(18건) 등이 뒤를 잇고 있다.

특히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신물질 가운데는 세계적인 물질특허도 다수 포함돼 있다. 지난 89년 화학연구소가 출원한 퀴놀론계 항생제에 관한 물질특허는 지난해 2100만달러(168억원)를 받고 영국 스미스 클라인 비참사에, 지난 91년 럭키가 개발·출원한 세파계 항생제는 미국 등 28개국에 출원과 동시에 1500만달러(120억원)에 영국 글락소사에 특허권을 팔았다.

또 지난 86년 1361건(조성물 포함)이던 제법특허가 지난해 1899건으로 연평균 5%씩 증가, 제조방법에 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미약품의 경우 스위스 로쉬사가 물질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세프트리악손항생제에 관한 새로운 제조방법을 개발, 일본·EPO(유럽특허청) 등 8개국에 출원하는 동시 지난 89년4월 로쉬사에 6백만달러(48억원) 로열티를 받고 오히려 역수출하기도 했다. 이는 미국의 압력에 의해 지난 87년부터 물질특허제도가 도입되면서 국내 의약·농약·미생물분야 기업들이 외국기업에 잠식당하지 않기 위해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화학저널 1994/5/30>